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5회 (2019년)	26회 (2020년)	27회 (2021년)	28회 (2022년)	29회 (2023년)	계	
상업 등기	총론		3	3.5	3.5	3	2	15	
	상호		1				1	2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1	1	
	합명회사					1		1	
	합자회사							0	
	주식회사		3	5	7.5	4	6	25.5	
	유한회사		1		0.5			1.5	
	유한책임회사							0	
	외국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1	1	2	4
비송 사건	총칙		2	1			1	4	
	민사 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0.5	1	1.5
		신탁에 관한 사건				1	1		2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5	0.5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0.5		0.5
	상사 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3		1.5		5.5
		사채에 관한 사건		1				0.5	1.5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1.5		1.5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0.5	1		1.5	
	총계			15	15	15	15	15	75

■ 제29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2문제, 비송사건절차 3문제로 예년 수준으로 출제 비중이 정상화되었다. 작년처럼 비송사건 절차법 문제가 과도히 많지 않아 출제 영역 부분에서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지문 길이는 2문제를 제외하고는 길지 않은 편이라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는 시간 부담은 적었겠지만, 지문의 형식으로 볼 때 기본지문 보다는 한두번 더 생각해야 하는 지문 또는 일부 표현이 변경된 응용지문들의 비중이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문제당 5개의 지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면 상급 4문제, 중상급 2문제, 중급 1문제, 중하급 4문제, 하급 4문제로 분석된다. 작년과 비교하여 상급과 하급의 문제수는 같았고, 중상급이나 중급 문제는 줄어들고 중하급 문제가 많아진 특징을 보인다. 예년에 비해서는 어려웠지만 작년 대비하여서는 조금 쉬웠다고 판단된다. 작년이 예년에 비해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쉬웠다는 것이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목을 정상적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7~8문제 정도는 기본점수로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난이도 상급 문제도 상당하여 12문제 이상을 맞춘 고득점자는 예년보다는 적고 작년과는 비슷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5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학습방향

상법과 연계된 상업등기 부분, 특히 주식회사 부분을 주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고루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제 기본 3문제 정도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강의에서 요약·정리한 사항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송재판 총론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에 수반하여 개별사건의 특칙들을 강의에서 제시하는 두문자 중심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